HOTEL · RESORT
Blue Stone
LODGING LLC.
☎(858) 847-0572 | Marriott | CROWNE PLAZA

기독일보

시내이사, 귀국이사, 타주이사
현대통운
www.hyundaemoving.com
(무료전화) 1.866.545.2424

"예 할 때 예 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하라" (마5:37) WWW.CHDAILY.COM THURSDAY, April 8, 2010 Vol.240

미주성결교회 창립 30주년, 하나된 성결인

남가주지역 성결인대회, 미국과 한국 성결교회 부흥 위해 기도



남가주지역 성결인대회에서 찬양을 드린 남가주성결교장로회부부성가단(지휘 이상율장로)

미주성결교회 교단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남가주 지역 성결인대회가 부활절 주일인 지난 4일 오후 6시 유니온교회(담임 이정근 목사)에서 열렸다.

성결교회 엘에이 지방회와 엘에이 동지방회, 남서부 지방회, 3개 지방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온전한 구원 거룩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성결교회 4백여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엘에이 지방회 회장 김수철 목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정근 목사의 설교, 합심기도, 남가주성결교장로회부부성가단의 찬양, 교역자 부부 찬양, 교단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정근 목사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설 것을 강조했다.

이어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미국, 한국의 성결교 부흥과 교단 30주년 총회를 위해', '성결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기 위해', '성결교회 총회 31년차 총회와 교역자를 위해' 등의 제목으로 합심 기도를 드렸다. 이날 행사는 성결교회 증경총회장 허경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헌금 4천불은 아이티에 건립될 고아원을 위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태근 기자〉

인천광역시, 세계성경장로교회 강신권 목사 국제고문으로 위촉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서욱수 목사) 소속 세계성경장로교회 강신권 목사가 인천광역시 국제고문으로 최근 위촉됐다.

인천광역시측은 인천시를 국제경제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경제, 문화 등의 국제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강 목사를 국제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 목사는 국제고문으로 위촉된 후 세계 153개국에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 주변 10개의 도시에 분교를 세워 총 1530개의 신학교를 세계 각지의 선교 전초기지로 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비전 153'프로젝트 75번째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최대의 광역시인 서머랑시와 인천광역시를 잇는 네트워 결성을 약속 받았다.

강 목사는 "인천광역시가 국제경제의 허브가 되긴 위해선 국제적인 인프라구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특별히 동남아시아인들이 인천으로 많이 들어와야 한다. 고문으로 위촉 받은 후 국제교회, 학교를 위해 컨소시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전했다.

강 목사는 한흑기독교연맹총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세계본부장, 비젼153글로벌미션총재, CSA 원전해석학회회장 등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이태근 기자〉

수천에서 수만까지, 美 부활절 예배 대형화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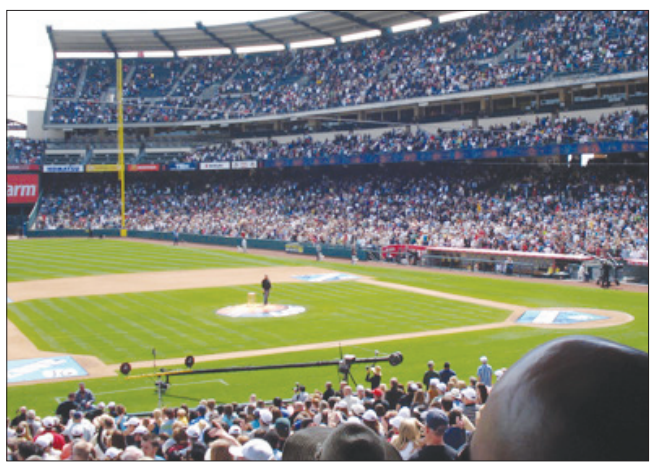
▶ 주경기장 · 지역 체육관 등 대여 보편화

부활절은 교회 절기 가운데 성탄절만큼이나 가장 큰 전도의 기회이기에, 새 신자 초대를 위한 대규모 예배가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인 새들백교회는 올해 남캘리포니아 주 최대 경기장 가운데 하나인 앤젤 스타디움에서 예배를 드렸다. 멀티 사이트형 교회로서, 평소 예배 때는 각 캠퍼스에 분산됐던 교인들과 이들이 초대한 새 신자들이 이날 5만 명 수용이 가능한 대형 스타디움을 가득 메웠다.

새들백교회는 올해 이 앤젤 스타디움에서 드리는 대형 예배를 문화 행사와 결합된 하나의 대규모 행사로 치르면서 새 신자들을 모으기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날 예배에는 미국의 유명 아이돌 밴드인 조나스 브라더스도 참여했다.

릭 워렌 목사는 "많은 교인들이 부활절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고 싶어한다"며 "단지 예배 드릴 장소가 좁아서 이런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 중 하나인 엘리베이션교회 역시, 북캘리포니아 주 타임 워너 케이블 스타디움에서 1만 명 가량이 모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했다. 샬롯 시에 위치한 이 교회는 원래 교인 수보다 수천 명 더 많은 사람들이 이날 부활절 예배에 모일 것으로 기대하고 대형 경기장을 대여했다. 〈손현정 기자〉



새들백교회의 올해 부활절 예배 모습. 총 5만여 명이 모였다. ⓒ새들백교회







미국35개주 신문에서 '부활절' 전면 광고

기독교 기업서 총 300면 달하는 광고 사들여

지난 부활절 하루, 미국 거의 전역에서 시민들은 부활절의 참 의미를 알리는 신문 전면 광고를 접할 수 있었다. 미국의 한 기독교 기업이 부활절을 맞아 35개 주들에 위치한 도시들에서 총 300면 가량의 광고를 사들인 것.

하비 로비(Hobby Lobby)는 미국에서 미술, 공예 등 각종 취미 활동에 필요한 용품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체인 스토어 기업으로, 현재 35개 주들에서 총 435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기독교인 경영자에 의해서 설립된 이 회사는 지난 1997년 이래로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이면 미국 전역에서 신문 전면 광고를 내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 성탄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점포가 들어서 있는 모든 도시들에서 총 300면에 달하는 지역지 전면 광고를 계약한 이 회사는, '깨끗이 닦인 석판(A Slate Wiped Clean)'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석판 아래에 사도행전 3장 19절(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을 인용해 놓은 광고 이미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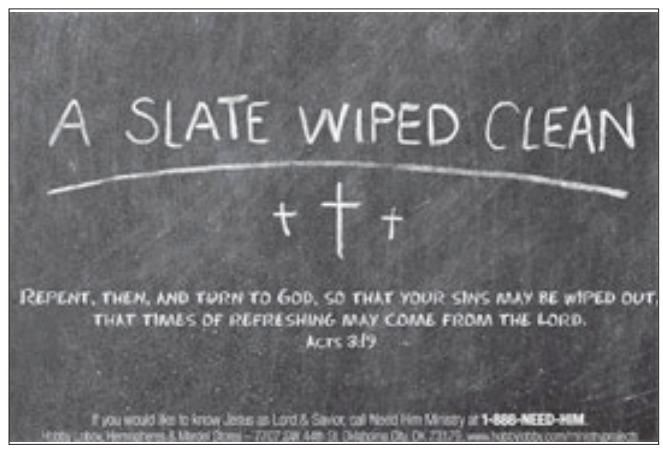
또, 광고 제일 하단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선교단체 니드 힘 미니스트리(Need Him Ministry) 또는 하비 로비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안내해 놓았다.

하비 로비 설립자이자 CEO인 데이빗 그린은 "사람들에게 이 날이 무엇에 관련된 날인지 그 의미를 알리길 원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에 관한 날이지, 부활절 토끼나 다른 상업적 메시지들에 내어줘서는 안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마다 광고를 내는 것이 엄청난 재정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광고를 접하고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올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하비 로비는 취미 용품 전문점인 특성상 주일에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주일성수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주일 휴무제를 고수하고 있다.

〈손현정 기자〉



Hobby Lobby의 올해 부활절 광고.

창립 30주년

맞은 새들백교회, "새로운 10년 향해"

새들백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부활절 예배와 더불어 캘리포니아 주 애너하임 앤젤 스타디움에서 창립기념예배를 드렸다. 1980년 부활절 첫 예배에 참석한 205명 인원의 무려 200배에 달하는 4만 5천여명의 교인들이 이 예배를 함께 드렸다.

새들백교회는 창립 후 첫 10년간은 지역 사역, 이후 10년간은 국가 사역, 2000년대로 들어선 최근 10년간은 국제 사역을 중심적으로 펼쳐 왔으며, 따라서 이날 예배는 새들백교회의 다음 10년의 사역을 향한 첫 걸음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새들백교회의 30주년 이후 사역은 캠퍼스 증설과 피스 플랜 사역의 확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게 된다.

릭 워렌 목사는 교회 개척 당시 40년 사역 계획을 세웠고, 이제 시작하는 10년간은 자신의 새들백교회에 대한 헌신을 마무리짓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30년간을 돌아보고 또 오는 10년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한 교회에서 지루함조차 없이 40년을 머무를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일이 많은 걸까?"라는 자문을 해 보게 되지만, 그 답은 "단 1초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대한 10년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라고 미래를 기대했다. 미국에서 가장 클 뿐 아니라 가장 잘 알려진 교회 중 하나로 성장한 새들백교회는 현재 매주 3만 명 이상의 교인들이 캘리포니아 주 레이크 포레스트에 위치한 메인 교회와 주 전역에 있는 캠퍼스들에서 4천여 소그룹을 이뤄 2백여 분야로 다양화된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또한 올해로 7주년을 맞는 새들백교회의 피스(P.E.A.C.E.) 플랜은 워렌 목사가 오늘날 5대 세계 현안으로 제시한 영적 공황', '섬기는 리더십의 부재', '극심한 빈곤', '유행성 질병', '문맹'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사역이다. 전 세계에서 피스 플랜에 헌신하는 10억의 교인들을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워렌 목사는 2008년에는 피스 연합(P.E.A.C.E. Coalition)을 창설해 피스 플랜을 통해 얻은 사회 네트워크와 선교적 정보들을 세계의 교회, 기업, 단체, 대학 및 기타 공공기관들과 공유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도 있다. 〈손현정 기자〉



새들백교회 30주년 기념예배에서 새로운 비전을 전하고 있는 릭 워렌 목사

▶ 개척 당시보다 200배 이상 모여

전도를 좋아하는 교인들의 7가지 특징

우리 교회가 보다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같은 고민을 한다. 그러나 그 전에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내가 더 전도에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질문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국의 한 교회 전문가가 조언했다.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SBC) 산하 설문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 대표 톰 레이너 박사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에 제공한 기고를 통해, '전도에 열의를 보이는 교인들의 7가지 특징'을 제시했다.

이는 20여 년간 4개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시무하면서 성장을 이끌어냈으며, 같은 기간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교회 조사를 해 온 레이너 박사가 그 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그는 먼저 이 7가지 특징이 "교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보다 전도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각 개인이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면 되는지 보여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 7가지 특징.

1.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다. 2. 그들은 복음전도를 위한 튼튼한 신학적 기반 위에 서 있다. 3. 그들은 말씀 묵상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 4. 그들은 열정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됨으로써 형제 자매들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한다. 5. 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를 사랑하며,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이 속한 사회에 헌신한다. 6. 그들은 복음전도를 위해 계획한다. 7. 그들은 전도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 〈손현정 기자〉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학 **광고국장** : 이인규
지 사 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
도박,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김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패밀리 컴맹탈출!

가장 쉽게 배우는 컴퓨터!
망설이면 늦습니다.

총CD 10개로 구성

컴맹탈출의 네비게이션만 믿으세요!

시판가격 $220 → 할인가격 $150

※ CD 한 프로그램만 이수하셔도 6개월분의 학원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컴퓨터를 배우시는 분은 많은데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 나이들었다고 엊그제 가르쳐줬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무시당하는 기분... 젊은 사람은 그런것도 모르니 한심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도 컴맹탈출이 안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까지 시중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가르치는 사람의 눈높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우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왕초보의 시각으로 만든 컴맹탈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빨리 갈 수도 늦게 갈수도 있어서 아주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잘해서 컴맹탈출이 아니라 프로그램 방법대로 따라하면 저절로 컴맹탈출!! 자동차 운전을 처음하실때는 누구든지 긴장하다가 어느정도 익숙해지면 재미있듯이, 컴맹일 때는 컴퓨터가 무섭지요. 어디를 갈 때 네비게이션이 가르쳐준 대로 가기만 하면 목적지가 나오듯이 내가 다 기억하고 잘 할려고 하면 나만 힘이 듭니다. 그냥 맡겨주고 따라가면 됩니다.

- 마우스 사용법에서 홈페이지 제작까지 완전 마스터
- CD롬에 넣기만 하면 자동 실행되어 따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컴맹이 탈출됩니다."
- 이 프로그램은 가르치는 사람의 눈 높이가 아닌 배우는 사람의 눈높이로 만들어졌습니다.
- 인터넷 왕초보에서부터 인터넷 박사 과정까지 반드시 배우고 마스터 해야하는 중요한 프로그램 10가지를 엄선한 것입니다.
- 학원갈 필요도, 교재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 당신의 'IT 내공' 을 체크해 보세요

IT내공 측정 20개 문항을 체크해 보세요.
'그렇다'고 답한 문항이 0~2개이면 하수, 3~12개면 중수, 13~16개이면 고수, 17개이상이면 달인으로 분류됩니다.

1. PC를 통한 정보검색과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하다.
2. 이메일을 받고 쓸 수 있다.
3. 온라인 쇼핑몰이나 주식거래를 자주 활용한다.
4. 블로그, 사이월드, 카페 등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곤 한다.
5. 사진이나 동영상을 편집 할 수 있다.
6. 이메일을 통해 RSS피드를 받아 보고 있다.
7. 트위터,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등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를 이용중이다.
8. 휴대전화로 웹검색을 할 수 있다.
9. 휴대기기(스마트폰 등)로 이메일을 확인한다.
10.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전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
11.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를 휴대기기에서 사용한다.
12.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본 적이 있다.
13. 휴대전화로 지도, 목적지까지의 경로, 대중교통 정보 등을 검색 할 수 있다.
14. 스카이프, 구글 보이스 등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15. 와이파이, 3G, 와이브로의 차이를 구분 할 수 있다.
16. 웹스케줄러나 동기화 프로그램으로 일정을 관리한다.
17. 스마트폰을 해킹하거나 OS교체를 시도해 본 적이 있다.
18. 구글닥스나 웨이브 등의 웹협업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
19. 2-3종 이상의 스마트폰과 e북 등 휴대기기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20. 휴대전화에 추가돼야 할 기능과 서비스들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

구입처 1-800-310-1089 자세한 정보는 www.mystanton.com

‘현실의 어려움 부활 신앙으로 극복하자’

남가주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드려져

남가주 지역 교회들의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가 지난 4일 일제히 드려졌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관한 부활절 연합예배는 4일 오전 5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드려졌으며, 회장 지용덕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설교는 ‘부활의 주님을 찾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가 전했다. 신 목사는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것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있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안전한가. 하나님이 고난의 상징이며, 요나를 살리기 위해 물고기 뱃속에 넣으셨다. 고난과 함께 안전, 부활하는 것인데 오늘날 오병이어와 같은 부활만을 생각지 말고 경제적인 어려움인 고난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을 생각하자”고 전했다.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가 주관한 부활절 연합예배는 4일 오전 5시 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드려졌으며, 부회장 민경엽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설교는 ‘부활의 승리를 누리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한기홍 목사가 전했다. 한 목사는 “어려운 환경과 억울하게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고 부활로 승리하셨다.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되어 환경과 어려움을 뛰어 넘는 승리의 삶을 살자”고 강조했다.

인랜드교회협의회가 주관한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전 5시 30분 인랜드교회(담임 최병수 목사)에서 드려졌다. 이날 설교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을 본문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최병수 목사가 전했다.

최 목사는 “부활의 생명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고 삶의 질을 바꾸는 힘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부활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업을 받자”고 전했다.

동부교회협의회가 주관한 부활절 연합예배는 글로발선교회(담임 김지성 목사)에서 드려졌으며, 김지성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나의 목자,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성가대원들이 부활절 기념 찬양을 드렸다.

중부교회협의회가 주관한 부활절 연합예배는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드려졌으며, 안동주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안 목사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소망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사우스베이교회협의회가 주관한 부활절 연합예배는 토랜스 제일장로교회(담임 김준식 목사)에서 드려졌으며, 이정현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이 목사는 누가복음 24장 22절부터 24절을 본문으로 ‘제삼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샌디에이고교회협의회가 주관한 부활절 연합예배는 샌디에고 연합장로교회에서 드려졌으며, 강용훈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강 목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밖에 베이커스필드교회협회의가 주관한 연합예배가 오전 6시 베이커스필드 한인침례교회에서 각각 드려졌다.

〈이태근 기자〉

‘근심 털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HYM 관계자들이 제22회 정기집회를 홍보했다.

남가주청년연합집회(대표 더글라스 김, HYM)가 오는 17, 18일 오후 7시 하나교회(담임 박종기 목사)에서 제 22회 정기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 주제는 ‘근심 뚫고 하이킥’. HYM 전정하 목사는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가지고 있을 근심을 털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이루어 삶 속에서도 평안을 이루자는 취지로 이같이 주제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여느 때와 달리 행사 첫째날인 17일 베델한인교회 청년교회 손경일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 위주로 진행되며, 둘째날인 18일에는 청년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진솔한 기도를 드리기 위한 찬양과 기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더글라스 김 대표는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모여 남가주를 환하게 비출 기쁨과 승리의 그날을 기대하며 교회의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태근 기자〉

한인교회가 꼽은 단기선교 국가는 어디일까

단기선교는 현지에서 장기간 머물며 사역하기 어려운 이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삶을 드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는데 참여하는 방법 중 하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교회는 주님의영광교회, 충현선교교회, 에브리데이교회, 감사한인교회, 세계비전교회, 나성영락교회, 대흥장로교회,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베델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등이며, 이들 교회는 조사에서 단기선교사 파송국가로 캄보디아, 파라과이, 멕시코, 필리핀, 일본, 페루, 인도네시아, 아마존, 북한, 터키, 중국, 브라질,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을 꼽았다.

조사에 참여한 교회 중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를 단기선교 국가로 꼽은 LA사랑의교회는 북미와 남미를 잇는 선교 전략 요충지로 두 나라를 꼽았으며, 온두라스의 경우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인구의 50%를 차지해 선교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단기선교 국가로 정했다고 밝혔다.

중대형 10여개 교회 단기선교 국가로 남미 꼽아

단기선교 시즌 한인교회는 어느 나라에 단기선교사를 파송할까. 남가주 한인 중대형 10여개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인교회들이 단기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남미 국가들로 나타났다.

〈이태근 기자〉

HANSAMIN
農協紅蔘 韓夢印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GST Language Center
갈릴리 신학대학
유학생을 장학생으로 초대
가장빨리 영어배우실분
학위전학, 신분변경무료
학생소개자특전!
목회자 추천
학비 선착순 파격할인 $140/월
Power English 무료청강 기회
I-20 자체발행, 석,박사 학위
특별장학금, 별도사례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550.7377 24시간

여성건강선교회
Samuel Yu 선교사
Tel. 213.999.2696
3200 Wilshire Blvd #1750 (south tower)
10 years feeding 1 million people.

HAPPYDAY CONFERENCE 2010
제1차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미주 컨퍼런스
Happyday System
폭발적인 부흥의 결과를 가져오는 8주간의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은 한국에서 2,300개 교회의 적용을 통해
평균 40% 이상의 출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 불신자 전도를 위한 제1차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 미주 지역과 캐나다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 500명을 선착순으로 등록 받습니다.

※ 2009년 가을 해피데이 전도를 통한 새신자 등록 현황

교회(담임목사)	출석교인	해피데이 새신자등록	교회(담임목사)	출석교인	해피데이 새신자등록	교회(담임목사)	출석교인	해피데이 새신자등록
순천성광교회(김동운목사)	1100명	600명	대구원대교회(김우혁목사)	330명	130명	하나인교회(이태영목사)	450명	200명
제자들교회(김경회목사)	120명	85명	대구선교교회(정성은목사)	50명	133명	산정현교회(김형권목사)	200명	100명
부천벧엘교회(오정호목사)	50명	52명	예향침례교회(이기영목사)	140명	79명	주님의교회(전영이목사)	18명	29명
부평교회(최원국목사)	200명	115명	부천빛된교회(오길용목사)	100명	80명	순복음열방교회(최동열목사)	50명	70명

더 늦기 전에 해피데이 전도를 준비하십시요.
해피데이 전도는 불신자 전도와 교회 부흥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서두르세요!

강사: 김한욱 목사(새안양교회 담임,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대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일시: 2010년 6월7일(월) 오후1시-9일(수) 오후5시까지
장소: 나성한인교회(담임 김영진 목사, 교회주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대상: 담임목사 및 성도(1교회 2명 이상, 담임 목회자는 필히 참석)
등록: 1인 $250(4월15일까지), 1인 $270(4월16일~5월5일까지), 1인 $300(5월6일부터)
교재, 중식 및 간식제공, 숙박 별도
환불규정: 5일전까지 10% 차감, 하루 전까지 20% 차감, 당일부터 30% 행정수수료 차감
등록방법: 둘로스교회 홈페이지(www.douloschurch.com) 게시판에 신청 후 체크를 보내고 전화 주세요.
Pay to the order of : Doulos Community Church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문 의: 해피데에 전도 시스템 미주 컨퍼런스 담당자 둘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전화 310. 951. 3153 팩스 310. 214. 1150 이메일 jlsbc@hanmail.net
※ 선착순 등록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 문답] 열두번째 빛과소금교회 이 정 현 목사

'2세 사역, 홈처치 이점 살린 사역자 양성 먼저 해야'

이민교회는 세대교체, 교회 연합, 2세 사역, 부흥 등 다소 무거운 주제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 본지는 목회자의 여론을 수렴해 한인 교회의 미래와 나아갈 바를 조명하고자 한다. 목회자 인터뷰는 한인교계의 발전을 위한 가능한 모든 여론을 수렴해 목회자들이 시무하는 교세와 목회자의 교단적 배경, 목회 연수에 관계없는 순으로 게재된다.

열두번째 만남은 빛과소금교회 이정현 목사다. 이 목사는 남가주한인목사회 제43대 회장으로서 남가주 교회의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으며, 말씀을 받는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자는 'I LOVE PASTOR'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목사가 시무하는 빛과소금교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로 한인 이민자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1981년 세워졌다. 사우스베이 중심부에 위치한 교회는 19년 동안 토랜스중앙장로교회로 불리우다 하버 성전으로 이전하면서 개명됐다. 교회는 역동적인 예배, 평신도를 사역의 주체로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와 젊은이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Back to jerusalem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교회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담임 이정현 목사는 총신대학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훼이스 신학대학원과 풀러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제자훈련과 성령운동, 치유사역 전문가로 그리고 미주 Back To jerusalem 운동 선교 전략가로 활동하고 있다.

목회자로서 교회들이 안고 있는 2세들의 신앙전수 문제를 고민해 오셨을텐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세 사역을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에 앞서 먼저는 2세들을 전담할 사역자들이 충분히 양성되어야 합니다. 2세들은 많은데 이들을 전담할 사역자들이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역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2세들에게 신앙전수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까지 뚜렷한 2세 사역의 모델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세 사역의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사역자들이 대개 오랫동안 사역 하지 않고 사역하지도 못하는데 있습니다. 전담자들은 2세가 부흥하지 않으면 부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떠나거나 또는 2세 사역의 비전에 대한 확신이 없어 다른 일을 찾아 떠납니다. 간혹 사역자들은 2세들이 왜 부흥하지 않느냐는 담임 목사의 말에 떠나기도 합니다.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권의 차이 등의 1세들과는 다른 환경의 영향으로 자란 2세들의 사역은 2세가 사역자로 제격인데 사역자들이 없는 현실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전수를 위해선 교회에서 사역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자가 양성되면 홈처치라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더 열심으로 섬기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홈처치라 사역자들이 쉽게 떠나지 않는 이점도 있습니다. 사역자가 양성되고 양성된 사역자들이 쉽게 떠나지 않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면 2세 사역의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실마리가 풀리게 되면 사역자들의 생활적인 부분 등 사역자들을 위한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모든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며 사랑 없이 사역 할 수 없으며 사랑의 동기로 일할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사역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배려도 사랑입니다.

사역자 양성을 위해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우선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선 2세 사역에 대한 사명감 고취가 필요한데 이것은 설교를 통해 자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왜 2세 사역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교인들이 전담 사역자로 나서야 하는지를 전하는데 결실이 있어 현재 3명의 교인이 3년째 사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신학교육을 위해 장학금을 주며 신학교에도 보냈습니다. 기대하는 바는 보다 많은 사역자들이 나와 2세들을 위해 사역하고 2세 부흥의 기틀이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세 사역을 위해선 2세와의 교류가 필요한데 일년에 4차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으로서 연합 활동을 하며 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셨으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 간에 연합이 이루어질까요?

회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연합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연합 없이 일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성과를 이루어낼 순 없습니다. 개교회별로 일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더 크고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선 연합이 필요합니다. 연합이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를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경쟁의식입니다. 목회자간 교회간의 경쟁의식이 있는데 교회와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동역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쟁의식을 내려놓고 섬김으로 연합에 동참할 때 진정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피차 섬기는 일에 열심이어야 하지 서로 싸우거나 경쟁해야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한인들도 교인들도 아닌 바로 마귀입니다.


빛과소금교회 이정현 목사.

연합을 위해 어떤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합을 위해서 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5월 6일 국가 기도의 날을 연합의 기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할 것인데 참여한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기자〉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뮤지컬 'His Life',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은혜한인교회서 공연

예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담은 뮤지컬 'His Life'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린다.

His Life는 1989년 초연됐고 2004년 한국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프라미스(Promise)'란 이름으로 공연됐으며, 20여년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순회공연됐다.

His Life가 20여년이라는 전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승천 등을 실감나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공연하기 때문. 공연에서는 생동감 있는 공연을 위해 실제 동물을 무대에 출연시키기도 한다.

은혜한인교회측은 "뉴욕을 뒤흔든 바로 그 뮤지컬이 공연된다. 이번 뮤지컬은 우리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태근 기자〉

얼바인침례교회 한종수 목사 재신임돼

한 목사, '2기 사역은 질적 사역에 중점'

최근 담임목사에 대한 신임 투표가 이루어지고 담임목사로 재신임되는 아름다운 일 얼바인 침례교회에서 일어났다. 재신임 받은 목회자는 10년째 얼바인 침례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종수 목사다.

한 목사는 부임 당시 10년 후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하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은 지난달 28일 지켜졌다.

한 목사는 이날 18세 이상 재직인원 1091명 중 685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한 목사를 신임한다는 찬성표를 얻어 재신임 됐다. 한 목사는 투표 전후 칼럼을 통해 신임 투표를 앞둔 소감과 앞으로의 사역 계획을 밝혔다.

한 목사는 투표 전 칼럼을 통해 "여러 교인들의 손을 빌어 지난 10년간의 제 사역을 평가하고 신임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리기 원한다"며 "신임을 묻는 자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 10년 동안 함께 충성해 오신 것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의미도 있다. 바라기는 투표를 통해 교회가 내실을 다져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투표를 앞둔 소감과 바램을 전했다.


얼바인 침례교회 한종수 목사.

또한 한 목사는 재신임 후 "10년 전 약속한 대로 저에 대한 신임 투표를 했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리며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제2기 사역은 내실을 기하는 질적인 사역에 중점을 둘 예정이고, 10년간 허락하신 외적인 부흥을 더 든든하게 다지며 성장해 가기 위하여 더 좋은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고 전했다.

또한 한 목사는 "제2기 사역의 목표는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인재로 바로 세워서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며 "그리하여 그 열매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전했다.

〈이태근 기자〉

주택 차압/퇴거중단

융자 조정(후불)

- 세컨홈 및 상업용 건물도 가능
- 2차 융자 금액 삭감 (18만불에서 16만불 탕감받았슴)
- 다른 곳에서 실패하신 분 환영
- Option Arm 가진 분들, 30년 고정으로 바꿔드립니다

- NOD, NOT 받으신 분 — 즉각 차압중단
- 융자 조정, 숏세일 실패해서 차압 당하게 된 분
- 차압(Foreclosure)이 이미 끝나고 Eviction(퇴거 명령) 기다리는 분 — 즉각 퇴거중단

NO...NO Short Sale : 저희는 숏세일을 절대 권유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켜드리는데만 목적을 두고 일합니다.

WP Lending Inc
3400 W. 6th st., #200, LA, CA 90020
(6가와 카탈리나, MBC 건물)
Paul Lee
213.248.9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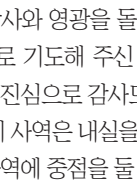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 2010년 4월 12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요."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턴)

부활 체험한 성도들, '화해자'로서 세상으로

2010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개최

"부활의 기쁨으로 평화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위대한 사건으로 새 삶을 얻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말씀과 신앙고백과 성만찬을 통해 하나됨을 체험하고,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파송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2010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가 4월 4일 부활절 새벽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부활과 화해'를 주제로 열린 이 예배에는 2만여 성도들이 참여해 예수 부활을 기념했고,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이 땅의 약자와 소수자를 섬길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식전 사회를 비롯해 모임 예전, 말씀 예전, 성만찬 예전, 파송 예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식전 사회를 맡은 김요셉 목사(예장 대신 증경총회장)의 소개로 단위에 오른 이광선 목사(한기총 대표회장)의 대회사와 전병호 목사(NCCK 회장)의 환영사로 예배는 그 시작을 알렸다.

이광선 목사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0년 경술년은 국치(國恥)가 있던 해였으나, 2010년 우리 민족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때에 한국 교회는 이 민족의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며 민족의 내부적 과제 해결에 힘쓰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며 세계 진리 경영에 쓰임 받는 섬김의 교회로서의 사명 또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올해 부활절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전병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용서의 길 여신 역사적 사건"이라며 "우리는 전쟁과 폭력, 갈등에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화해와 위로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것을 다짐하자. 감격과 체험의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모임 예전부터는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의 사회로 진행됐고, 기도와 성경봉독, 성가대 찬양, 방지일 목사(영등포교회 원로)의 부활절 메시지 등에 이어 설교자인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가 단 위에 올라 '온 인류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구약- 시 133:1~3, 서신서- 고후 5:20, 복음서- 요 20:19~23)를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 최대의 기적이요, 기쁨과 감격의 사건"이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4가지 희망의 메시지, 즉 "평화를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충만을 받고"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특히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 천안함 침몰 사태, 잇딴 자살, 생태계 파괴, 출산율 저하 등 이 시대 민족과 인류의 과제들에 대해 언급한 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겸손으로 옷입고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에 이어서는 참석한 전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고 니케아 신앙고백을 낭독하며 화답했고, "회개와 참회", "한국교회 일치와 복음화", "나라와 민족의 화해와 통일", "세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또 한기총 총무인 김운태 목사와 NCCK 총무인 권오성 목사가 나란히 단에 올라 '2010 남북교회 부활절 공동기도문'을 낭독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했다.

한편 이날 헌금은 전액 대북 인도적 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김진영 기자〉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2만여 성도들이 참석해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기뻐했다. ⓒ 김진영 기자



김영진 의원, 이영훈 목사, 이광선 목사, 황우여 의원(왼쪽부터)이 십자가를 들고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나서고 있다. ⓒ이대웅 기자

평화 · 통일 위해 거리에선 십자가를, 국회에선 촛불을

부활절 PPP 십자가 대행진 및 금식 기도회

예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금요일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2010 부활절 PPP 십자가 대행진 및 금식 촛불기도회'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광장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일대에서 개최됐다.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김영진 의원(민주당·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과 황우여 의원(한나라당·국회조찬기도회장) 등은 여의도순복음교회 광장에서 국회의사당을 거쳐 의원회관까지 십자가를 들고 행진했다. 촛불기도회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여야 기독의원들이 한일기독의원연맹의 이름으로 일본교과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행진에 앞서 광장에서 드려진 PPP 십자가 대행진 부활절 예배에서 설교한 이영훈 목사는 "이러한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백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행진을 마친 후 촛불기도회가 곧바로 시작됐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기독인회 총무) 사회로 열린 기도회에서는 이광선 목사가 설교했다. '그가 찔림은(사 53:4-6)'을 주제로 설교한 이 목사는 "우리는 지금 천안함 침몰이라는 슬픔과 비탄 가운데 있다"며 "생각할수록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민족의 분단이고, 이 분단의 아픔은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고난을 받으신 종만이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오늘 십자가 행진을 했는데, 십자가를 진 사람이나 뒤에서 따르는 사람,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 모두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회의원들은 부활절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영진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우리들의 소망을 담아 부산-판문점-평양을 잇는 PPP기도회를 10년째 진행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정치와 외교만으로 풀 수 없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하기에 이를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황우여 의원은 "십자가를 지고 국회로 들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복음의 시작이자 모든 죄와 허물을 메꾸고도 남는 부활이라는 선언을 선물로 주셨는데, 남북 분단으로 계속되는 질고와 갈등을 뛰어넘을 방법도 이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진·황우여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모여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한일기독의원연맹은 일본교과서의 독도영유권 표기를 엄중 규탄하며, 검정결과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해 일본 민주당이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뒤 하토야마 총리가 우애와 대아시아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동아시아경제공동체 논의가 재점화되는 시점에서 일본교과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반역사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며 "더구나 올해는 경술국치 1백주년을 맞는 해로 일본은 과거 고통받은 아시아인들의 상흔을 치유하고 과거사의 족쇄에 발목이 잡혀 한치 앞도 전진하지 못하는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 화합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임에도 가해자로서 진솔한 반성과 태도 변화는 커녕 한술 더 떠 영토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안타깝고 한심스런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배 순서자들을 시작으로 참석자 모두가 한반도가 그려진 지도에 촛불을 점화했다.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헌시를 낭독했고, 김인혜 교수(서울대)와 김필승 교수(한세대)는 특별찬양했다. 대표기도는 최규식 장로(민주당기독신우회장), 성경봉독은 전혜숙 의원(민주당 원내부대표), 축도는 전병금 목사(강남교회)가 맡았다.

〈이대웅 기자〉



'THE BIBLE EXPO 2010' 조직위 홍보 기자간담회

성경 속에 '이 시대 최고의 문화 컨텐츠' 있다

지난 3월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발대식 및 제작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준비 돌입을 알렸던 'The BIBLE EXPO 2010(대회장 이광선 목사)'. 그러나 짧은 홍보기간 탓에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실체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The BIBLE EXPO 2010' 조직위원회(더 바이블 엑스포, 조직위원장 김영진)가 5일 서울 상암동 동 위원회 사무실에서 교계 언론들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조직위 하철환 사무총장, 조규민 더 바이블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원진 본부장, 이현종 부본부장, 이세홍 지도목사 등이 자리했다. '생명의 빛, 사랑의 빛, 희망의 빛'를 주제로 한 더 바이블 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기독문화예술을 창조하고 이를 널리 알려 생명과 사랑, 그리고 희망의 빛을 전하자"는 취지로 준비되고 있으며 7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인천 송도센트럴파크(100,000㎡)에서 열린다.

성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널리 알려지고 오래도록 읽힌 책이다. 더 바이블 엑스포는 바로 그 성경 속에서 "이 시대 최고의 기독 문화 콘텐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언제부터, 누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성경이 겪어온 기나긴 여정을 따라가면서 알아본다.

오감(五感) 총동원해 하나님 사랑 느낄 수 있도록 기획

엑스포는 크게 구약존, 신약존, 바이블랜드, 바이블월드, 바이블 플라자, 바이블엔터테인먼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더 바이블 엑스포는 인간의 오감(五感)을 총동원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빛'을 주제로 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소재와 효과를 통해 찬란의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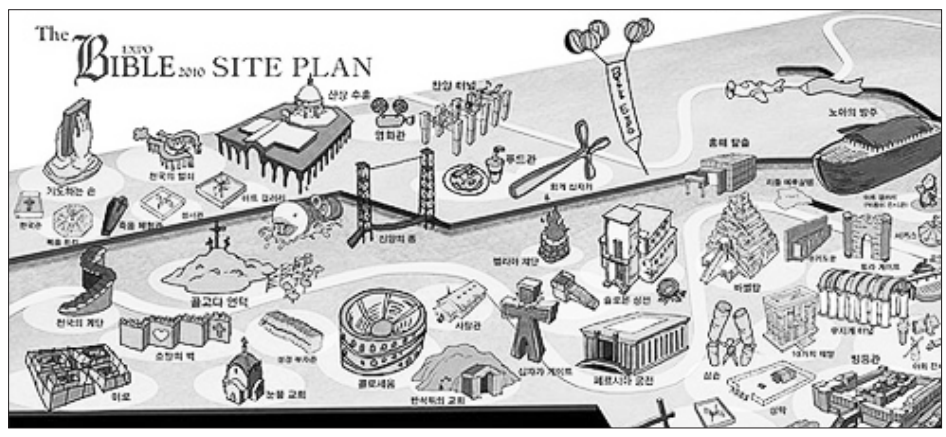
먼저 구약존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스라엘의 출애굽 등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감할 수 있게 기획된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은 실제 크기로 제작될 '노아의 방주'. 무려 길이 135m, 폭 22m, 높이 12m로 짓는다. 이 뿐 아니라 바벨탑과 솔로몬의 성전 등을 모두 철저한 고증을 거쳐 가장 사실과 가깝게 재현한다.

그 다음 신약관에서는 갖가지 인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바이블랜드에서는 성경 속의 문화를, 바이블월드에선 성경의 제작 과정과 역사를, 바이블플라자에서는 음식과 문화 등 성경을 토대로 한 다양한 축제를, 바이엔터테인먼트에서는 러시아 볼쇼이 서커스단을 비롯한 공연과 이벤트를 체험케 할 계획이다.

모든 조형물과 콘텐츠는 행사가 시작되는 7월 16일 이전까지 준비되는 반면, 예루살렘의 모습을 조형물로 제작하는 '리틀 예루살렘'의 경우 전시장 내에 공방을 마련해 제작과정을 감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약 3개월여에 걸친 제작과정을 직접 감상할 수 있게 해 흥미를 돋운다는 취지.

'사실과 가깝게' 보다 '성경의 메시지 전달' 에 더 주력

이원진 본부장은 성경의 내용들을 재현하는 데 있어 조직위측이



더 바이블 엑스포 행사장 조감도.

"얼마나 사실과 가깝게 제작하느냐"보다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얼마나 성경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느냐"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에덴동산의 경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에덴동산과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노아의 방주의 경우 의인 노아가 심판당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느꼈을 비통한 심정을, 바벨탑의 경우 우리 일상 속에도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있다는 경고를 담는다.

엑스포는 세계인이 공감하는 한국의 글로벌 관광문화 축제를 개발하고, 오페라의 유령이나 캣츠 등을 뛰어넘는 지구상 가장 강력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성경을 통한 문화예술산업화 및 선점효과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직위는 관람객 500만명(외국인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으며, 연인원 약 3만여명의 고용창출과 3천억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 수익금을 통해서는 국내외의 불우이웃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행사지만 조직위측은 성공적 개최를 자신하고 있다. 하철환 사무총장은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작해 금융PI를 받을 예정이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적으로 헌신하며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사무총장은 "모두가 공감하고 비기독교인들까지도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감동될 수 있도록 최고의 문화 컨텐츠로 준비하고 있다"며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했다. 모든 제작과정을 백서로 만들어 금융 및 제작 노하우 등을 관심있는 모든 이들과 공유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예매문의: 02-541-1100

홈페이지: http://www.bible-expo2010.com/

〈류재광 기자〉

'제2의 김길태' 막을 법률 개정안 통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와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통신매체이용 음란 등 3가지 범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성명·사진·주소 등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둔 지역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오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비판받았던 음주·약물 등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감경 제도를 배제하고, 기타 성범죄 대상범위를 확대하며 성매매 관련범죄 처벌강화, 신상정보 등록기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처분제도 도입, 검사의 친권상실청구 의무화 등 규정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외에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지원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인가제로 강화해 시설의 지역별 균형 설치를 유도하고 시설 난립을 방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게 했다.

여성가족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에서만 가능한 성범죄자 열람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대웅 기자〉

피해자 고소 없어도 공소 제기 · 음주시 범죄에도 형 감경 배제 등

"도박 중독자 3백만 명… 대한민국은 '도박 공화국'"

제5회 도박 추방의 날 "나무는 심고 도박은 뿌리뽑자!"

제5회 도박 추방의 날 행사가 5일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됐다.

전국 3백여곳의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모여 결성한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넷)이 주최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사회에 만연한 한탕주의식 도박 문화를 청산하고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도박 시설들의 선규 건립을 반대하며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매년 4월 5일 열리고 있다.

4월 5일은 88년 전(1922년)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가 발족한 날로, 우리나라에서 도박이 최초로 합법화된 날이다. 도박규제넷은 이 날이 식목일과 겹치는 점을 활용, '나무는 심고 도박은 뿌리뽑자'는 구호를 전국에 확산시키고 있다.

도박규제넷은 지난 2000년 이후 강원랜드와 로또를 비롯한 각종 도박산업 확대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장외 도박 매장에 대한 대책위를 설립, 서명운동과 공청회 등을 전개하면서 시작됐다. 도박규제넷에는 기독교사회책임을 비롯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의정치실천연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참여연대, 흥사단 등이 참가하고 있다.

아리랑 사물놀이패의 문화공연에 이어 열린 기념식에서는 도박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 권병, 조혜자 작가의 도박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시 낭독, 서영애 전도사(도박규제넷 사무국장)의 경과보고, 등이 이어졌다. 이어 도박 피해자 증언에 나선 강모 씨(경마 피해자 모임)는 "경마에 빠진 사람들은 단돈 1백원만 생겨도 갚지 않아 가족과 지인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대웅 기자〉



"어려운 때 연합이라 더욱 의미있어"

뉴욕. 뉴저지. 필라 지역,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로

2월 17일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념하는 40일의 사순절(lent)을 지내고 4월 4일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지역은 각 지역 교회협의회가 주축이 돼 연합으로 부활새벽예배를 드렸다.

먼저 뉴욕 지역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신현택 목사)가 4일 새벽 6시 플러싱. 맨하탄. 브롱스. 브루클린 전 지역의 27개 한인 교회에서 일제히 연합새벽예배를 드렸다.



뉴욕 롱아일랜드 지역 서폭카운티 부활절새벽연합예배가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에서 진행됐다.

부활절연합새벽예배 준비위원장을 맡은 노기송 목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때에 드려진 예배라 더욱 의미 있었다고 본다"며 "어려운 때에 연합해 마음과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욕 지역 부활절연합새벽예배 평가회는 오는 8일 오전 11시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진행된다.

뉴저지 지역은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춘길 목사, 이하 뉴저지교협) 주최로 총 15개 지역 12개 교회에서 진행됐다. 예배는 뉴저지초대교회(북부 1, 설교자 한규삼 목사), 뉴저지만나교회(북부 2, 유재도 목사), 필그림교회(북부 3, 양춘길 목사), 뉴저지연합교회(동북부 1, 나구용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동북부 2, 문정선 목사), 벧엘중앙교회(동북부 3, 유병우 목사), 뉴저지동산교회(동북부 4, 윤명호 목사), 뉴저지성도교회(서북부, 허상회 목사), 베다니감리교회(중서부 1, 장동찬 목사), 뉴저지연합장로교회(중서부 2, 강세대 목사), 찬양교회(중부 1, 허봉기 목사), 갈릴리교회(중부 2, 박삼경 목사)에서 드려졌다. 뉴저지 지역 예배는 따로 준비위원회를 두지 않고 교협 임원회가 함께 준비했다.

필라델피아교회협의회(회장 이용걸 목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4개 지역으로 나눠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열었다. 예배는 영생장로교회(몽고메리 랜드데일 지역, 설교자 강승호 목사), 필라제일장로교회(챌튼햄 지역, 이대우 목사), 벅스카운티장로교회(벅스카운티 지역, 차명훈 목사), 필라임마누엘교회(어퍼다비 지역, 안영균 목사)에서 드려졌다. 각각 설교 제목은 '부활 신앙의 정도' (몽고메리 랜드데일 지역),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챌튼햄 지역), '살아계신 주'(벅스카운티 지역), '할렐루야 예수 부활'(어퍼다비 지역)로 진행됐다.

〈오상아 기자〉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한국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지난달 26일 발생한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사고를 당한 장병과 구조 작업 중인 장병을 위해 기도회를 열었다. ⓒ미주한인회총연합

미주한인회, 천안함 침몰 피해자 위해 기도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남문기)는 한국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지난달 26일 발생한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사고를 당한 장병과 구조 작업 중인 장병을 위해 4월 1일 기도회를 열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각 지역 한인회에도 이메일을 통해 기도회를 열기를 권유하고 있다.

기도회는 애국가와 미국 국가 봉창에 이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이번 사건으로 순직한 한주호 준위에 대한 묵념, 기도, 대표자 인사말, 우리들의 바람 낭독으로 진행됐다.

한편 1977년 워싱턴 DC에서 설립된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미국 내 8개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뉴욕(한인회 전체 14개), 뉴저지(9개), 펜실베니아(5개), 커네티컷 지역(1개)은 동북부연합회(회장 이경로)에 소속된다.

우리들의 바람
(남문기 총회장)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왔노라.
반으로 갈라진 채
반으로 갈라진 삶과 주검.
삶과 죽음의 교차로에 있는 후배들아
여러 선배들도 그런 혹독한 시련을 겪었고
많은 분들은 전쟁으로 돌아가시고 했단다.
추위에, 무서움에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그러나 여러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란다.
군인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한단다.
부디 살아남아 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간절히 바란단다.
이를 악물고 죽지만 말고
살아서 돌아와 주길 진심으로 바란단다.
그리고 이 추위에 바다 위를
무슨 고속도로에서처럼
종횡무진하는 후배들아!
여러분은 대한의 자랑스런 군인이란다.
다치지만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주기를 바란단다.

〈오상아 기자〉

라티노 도시빈민들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다

굿스푼, 부활절 예배 드리고 성경 나눠

굿스푼선교회(대표 김재억 목사)가 4월 3일(토) 오전 11시 애난데일 소재 굿스푼선교회 사무실 앞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도시빈민들에게 성경(신구약)을 나누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다.

중남미 라틴아메리카 출신 라티노들은 대부분 기독교도들로 사순절 기간을 경건한 신앙자세로 보낸다. 특별히 고난주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당한 지난 금요일엔 금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다.

부활절 예배에서 라티노 이웃과 한인봉사자들이 함께 코러스로 부른 스페니쉬 찬양은 '아 띨라 글로리아'로 '주님께 영광'이란 부활절 감사찬양이었다. '아 띨라 글로리아 오 누에스뜨로 세뇰, 아 띨라 빅또리아 그란 리베르따도르'(A Ti la Gloria oh nuestro Senor, a ti la victoria gran Libertador, 주님께 영광 다시사신 주, 사망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배 후엔, 지구촌마켓(사장 김종택)에서 제공한 밍크 담요 70벌, 나누리선교회(회장 윤두희)에서 제공한 100권의 스페니쉬 성경책, 메릴랜드 제섭 제이 글로벌마켓에서 제공한 망고와 바나나가 라티노 도시빈민들에게 푸짐하게 선물로 나눠졌다.

인터내셔날갈보리교회(담임 이성자목사)와 워싱턴 D.C에 소재한 만두식당(사장 이예순)에서 제공한 맛있는 치킨 브레스트 바베큐와 맛있는 점심식사는 참석한 모든 이에게 풍성한 부활절 잔치자리가 되었다.

과테말라 출신의 제니 쏠리스(60세)는 "지난해 연말 교통사고를 당해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고, 그나마 다니던 파트타임 일자리도 잃었다. 그로인한 극심한 생활난에 한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부활의 기쁨을 따뜻한 한인들과 나누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굿스푼선교회 김재억목사는 "부활의 기쁨을 이민생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며 "2010년에도 꾸준히 2만여 명의 도시빈민을 위한 밥퍼 사역과 복음전도 사역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굿스푼 주소: 4209 Evergreen Ln., Annandale, VA 22003 / 703-256-0023, 622-2559

〈조요한 기자〉



지구촌마켓에서 기증한 70벌의 밍크담요를 빈민에게 기증하는 장면



"내려놓은 연합" 으로 성공한 "내려놓음 집회"

몽골국제대학교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교수 초청 집회는 외적으로 볼 때도 큰 성공이었다. 지난달 26일 한인서부교회에서 열린 저녁 집회에는 3백명 이상이 참석해 본당이 가득차고 보조의자까지 가득찼다. 행사 시작 시간보다 조금 늦게 방문한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바람에 주최측이 발을 동동 굴렀다. 27일 크리스천해리티지아카데미에서 열린 저녁 집회도 8백석 극장의 좌석 중 6백석 가량이 채워졌다. 그 저녁 집회에 앞서 참길장로교회에서 열린 선교패널세미나에는 선교 관심자 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근래 시카고 교계에 보기 드문 성공 사례로 꼽을만하다. 한편에서는 "역시 이용규 선교사"라는 말도 나온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선교사의 저서들은 기독교계 뿐 아니라 종교 분야 전체에서 베스트셀러로 꼽히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가 각종 집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들은 선교에의 감동과 도전을 주며, 특히 청년들에게 강하게 어필해 왔다. 이번 집회에서도 겸손, 내려놓음, 믿음 등에 관한 그의 일관된 메시지는 참석자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 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집회를 성공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 선교사의 '네임 밸류' 때문만은 아니다.

■ 집회 자체보다 더 성공적인 연합의 모습

이번 '사건'은 청년과 청년사역자들이 시카고 교계에 연합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 준 대표적 행사로 기록될만하다. 교회에서 보통 '청년부'라고 할 때는 한어권에 속한 1세 유학생이나 1세 청년층, 1.5세 대학생 등을 가리킨다. 교회 안에서 이들의 처지를 꾸밈없이 말하자면 '찬밥'인 경우가 많다. 자기들 스스로가 돈이 없어 무슨 일을 주도적으로 하기 어렵다. 교회 역시 차세대 사역이라고 하면 영어권 2세를 주로 생각하기에 한어권 청년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게다가 이들은 기성세대에 도전적이며 비판적인 경우가 많아 교회에서는 약간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기 쉽다. 이들을 목회하는 청년사역자의 처지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

이용규 선교사의 시카고 방문은 28일 윗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서 시작됐다. 이 소식을 알게 된 한 한인교회가 "기왕 시카고를 방문하는 것이면 시카고 교회들을 위한 집회를 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출석하는 대표적 청년교회다. 만약 집회를 혼자 열었다면 표면적으론 '대박'이었겠지만 이 교회는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집회를 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받을 수 있고 교회 연합의 우의도 다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네이퍼빌 지역의 4-5개 교회가 공동으로 집회를 추진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시카고 지역에서도 큰 연합행사를 치르기 위해 청년 사역자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에 청년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최 단체를 'Vision to Chicago'와 '시카고기독청년연합'으로 내세웠지만 이 두 단체 모두, 대표도, 조직도 없는 일종의 '모임' 성격이다. Vision to Chicago는 '시카고에 희망을 주는 교회'라는 뜻에서 나왔고 이번에 네이퍼빌의 교회들이 연합하며 내세운 이름이다. 시카고기독청년연합은 시카고 지역 기독 청년들의 모임이다. 조직이 없으니 규모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짐작할 수 없지만 여튼 '부흥'에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인 셈이다.

이 모임의 한 참여자는 "조직이 생기면 기득권도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며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한 비전으로 모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연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이번 집회를 성공적이라 보는 이유는 집회 자체보다도 이 집회를 준비하며 청년들이 네트웍되고 이들 안에 각성이 일어난 것"이라며 "집회의 주제대로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청년과 청년사역자들은 이번 집회를 준비하며 두달간 10여차례 모였다고 한다. 그는 "직접적으로 자기 교회가 잘되는 일은 아니지만 '시카고의 부흥'이라는 순수한 목적 아래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고 전했다. 네이퍼빌 지역의 웨스트시카고온누리교회와 시카고 지역의 다솜교회에서 준비기도모임을 할 때는 2백명까지 참여해 교회의 부흥과 치유를 부르짖었다. **주최측은 수적 성공보다 집회 참석자들 개개인의 변화, 청년들 간의 강한 연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집회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김준형 기자〉



시카고 지역 청년들이 연합으로 준비한 이번 집회가 수적인 면 이상으로 거둔 성공은 바로 연합 정신이었다.

엔젤스합창단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

노래와 춤으로 펼쳐낸 한국문화

한국의 문화를 미국사회에 알리는 향연이 노스이스턴대학교에서 4월 5일 펼쳐졌다. 노스이스턴대학교가 미주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와 커뮤니티 간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한 아시안 어메리칸 해리티지 컨퍼런스에 엔젤스 합창단, 한국무용원, 코리안클래식앙상블 등이 참여해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를 자랑했다.

음악회는 한국무용원의 소고 소리로 시작됐다. 밝은 소고 소리와 경쾌한 움직임, 소고가 주는 시각적 효과와 한국 전통 의상의 아름다운 조화에 참석자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두드리고 치고 달리고 멈추는 동작 하나 하나에 청중들의 눈과 귀가 모아졌다. 그 다음은 한국무용원의 이애덕 단장이 선보인 태평무 독무였다. 한국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에 지정된 이 태평무는 섬세하고 우아하며 절도있는 동작을 특징으로 한다. 복잡한 가락을 다양한 발구름과 발짓에 담는 것이 태평무의 백미 중 백미로 꼽힌다. 이 단장은 태평무만이 지닌 정중동(靜中動)의 발짓을 궁중 전통 의상 속에 숨기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며 춤을 이어갔다. 숨막히는 긴박감 속에 이 단장의 손짓, 발짓이 완전히 끝나자 청중들은 한참 뒤에야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이화여대에서 한국무용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부산아시안게임 개회식 안무를 맡는 등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인 이 단장은 시카고에서 아시안어메리칸페스티발, 패스포트투더월드 등의 행사에 출연할 정도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한바탕 춤사위 후에 본순서를 맡은 엔젤스합창단은 〈만남〉, 〈사랑이여〉, 〈보리밭〉 등 한국 가요와 가곡을 불렀다. 재미시카고한인간호사협회의 간호사들로 구성된 합창단인만큼 백의의 천사를 상징하듯 흰 옷을 입고 나온 단원들은 한국인의 귀에 익숙한 곡들로 무대를 이어갔다. 잠시 뒤 색색 한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무대에 섰을 때는 〈울산 아가씨〉, 〈고향의 봄〉 등 민요와 동요를 불렀으며 〈아직도 내겐 음악있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등 명성가곡도 연주했다. 미국사회에 한국 문화를 알릴 뿐 아니라 창단 10주년 기념 연주회를 겸한 이 무대였기에 모든 단원들에게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이내 음악과 하나되는 완숙한 실력을 보여 주었다. 이 음악회는 노스이스턴대학교가 매년 개최하는 컨퍼런스에 엔젤스합창단이 초대돼 한국 음악을 선보이는 형식을 띠고 있었다. 엔젤스합창단은 시카고 출신의 연주자이면서 주류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빗 한 막스 씨, 피아니스트 조세핀 리 씨도 이번 연주회에 세웠다. 막스 씨는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전세계적으로 연주회를 열고 있다.

〈김준형 기자〉



노스이스턴대학교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엔젤스합창단이 청중과 함께 노래하고 있다.

나무교회, 찬양예배로 창립2주년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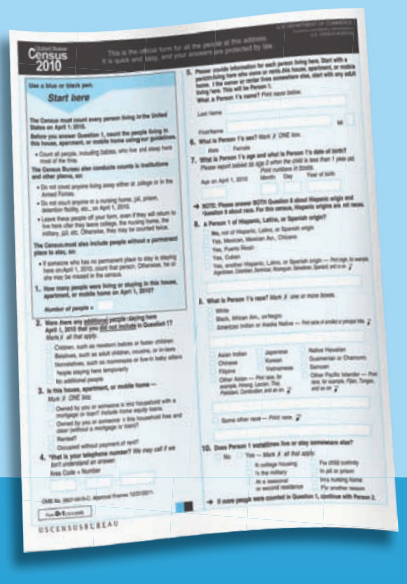
공연실황 CD 제작에 구슬땀

매월 한 차례 '서프라이징 콘서트'로 교계와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해 온 시카고나무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거창한 축하 행사'가 아닌 '잔잔한 찬양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지난달 27일 스코키 St. Timothy's Lutheran Church에서 열린 2주년 감사예배에는 'Friend'라는 주제 아래 그동안 나무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해 온 성도들과 지인들이 참석했다.

나무교회는 지난 2년간 음악을 통한 사역에 비전을 가져왔다. 담임 김정한 목사가 서울대 음대 출신이란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음악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상과 배경, 때와 장소를 초월해 전할 수 있는 도구라고 믿기 때문이었다. 매월 개최하는 서프라이징 콘서트는 성악부터 CCM까지 다양한 노래로 사람들을 만나 왔고 그 결실 중 하나로 지난 9월에는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열린 한인 유학생 신입생 환영회에서 시카고나무밴드라는 이름으로 나무교회가 음악을 맡기도 했다. 나무교회는 2주년 감사예배에서 'I am a Friend of God', '온 맘 다해', '예배합니다' 등 회중과 호흡할 수 있는 찬양곡을 주로 불렀으며 특히 시카고나무밴드가 직접 만든 '열납', '그래서 나는 찬송해요' 등 신곡을 발표했다. 나무교회는 창립 2주년을 기념하며 자신들의 창작곡과 기존 곡들을 모아 공연실황을 직접 CD로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음악의 도시 네쉬빌로부터 엔지니어를 초청해 녹음할 계획이며 이 프로젝트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 〈김준형 기자〉

우리의 10분, 교육환경과 취업기회 그리고 커뮤니티를 발전시킵니다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2010년 인구조사 양식은 10분이면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식으로 커뮤니티의 중대한 서비스와 개발을 위해 해마다 분배되는 정부지원금 4,000억 달러 이상을 우리 커뮤니티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 인구조사 양식을 기입해주십시오.

- 인구조사는 법적으로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은 물론, 법적으로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귀하의 2010년 인구조사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지 않으신 분께는 정보수집을 위해 인구조사원이 자택으로 방문합니다.

한국어 지원을 원하시면 1-866-955-2010으로 전화하시거나 2010census.gov로 방문해주십시오.

인구조사 양식을 보내주십시오.

United States™ Census 2010

미국인구조사

우리 손에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 제공

부활의 사실성

안인권 칼럼



안 인 권 목사
새소망교회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이적입니다. 이 부활의 실제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나면 성경의 모든 이적에 대하여 더 이상의 토론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성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지만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는 결정적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자신의 운명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지극히 한계적인 존재인 사람들은 예수그리스도의 존재와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많은 이의를 제기해 왔지만 그 모든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시도인지를 확인해 주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이적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신앙이 설수도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100% 성공으로, 또는 100%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100% 진짜일수도 100% 가짜일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천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로 있었던 확실한 사건에 기초를 두고 있는 역사적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들은 그의 탄생과 그의 사역,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지냄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이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특히 그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는 그가 주장하는 대로 그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일수가 없으며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지난 이천년 동안 속은 것이요 설교자들은 거짓을 설교한 것이 되며 신자들은 헛된 구원의 소망에 기만을 당해 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부활의 사실에 의문부호를 붙이지 않고 감탄부호를 붙일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빈 무덤의 냄새를 맡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비웃은 회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시체가 있는 무덤을 가진 여타 종교들은 현실적인 종교요, 시체 없는 무덤을 가진 기독교는 비현실적인 종교로 치부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르러 왔던 사람들이 그의 무덤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덤이 텅 빈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제외하고는 도저히 설명될 길이 없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주님의 시체를 어디서든지 찾을 수만 있었다면 부활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얼마든지 허구라고 증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확실히 기독교는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무덤 속에 매장된 채 그대로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근거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고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1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또는 각기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만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어떻게 거짓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바울이 만일 다매색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뀔 수가 있었겠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갔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특별히 삼일동안 철두철미하게 지켜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삼엄한 경비를 섰습니다.

시체도난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지키는 상태에서 무서워 피신한 제자들이 무슨 힘으로 시체를 빼앗아 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단지 졸도 했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미 아리마대 요셉의 시체인도 요청에 의해 빌라도는 백부장을 통해 사망상태를 확실히 확인한 후에 내주었습니다만, 졸도 했었다 해도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이 장정 20명이 옮겨야 하는 무거운 돌을 움직이는 것과 군인들의 감시를 뚫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라 환상을 봤다는 억지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일시에 약속한 듯이 환상을 보고 실제 사건으로 오인 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간 무려 11번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만져보게 하셨고, 함께 식사도 나누었습니다. 승천직전 감람산 현장에서 오백여 형제가 함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유신학자 De Wette는 "씨저가 암살당한 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것과 똑같이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도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전성, 영생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직접 보고 만지게 하신 기적 같은 사실입니다.

현순호 칼럼



현 순 호 목사
전) 미국장로교회 중서부 지역 한인교회 총무

승자와 패자

사람은 경기 시합을 해야 사는 맛이 난다. 겨우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이가 엄마와 가위 바위 보를 하며 이기고 지는 것을 배우는가 하면 학교에서는 자주 반 대항 각종 경기를 하고 학교 대항 시합도 있다.

뽑힌 선수들은 최선을 다 하고 응원단은 최대로 목소리를 높여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세로 응원을 한다. 그런 기회를 통하여 운동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고 자기가 속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협동 정신의 위대함을 배우고 또한 승리자의 성취감을 체험한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국가 대 국가로 치열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의 규모에 따라 사회 전반에 활력소를 불러일으킨다. 토인비가 말했듯이 '건전한 사회는 건전한 경기와 종교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바로 지적한 것이다.

얼마 전에도 밴쿠버 올림픽 경기가 있는 동안에 세계의 눈은 밴쿠버로 모였고 한국은 그 때 낮 밤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보수진보 할 것 없이 한국 팀을 응원했다. 더욱 신나는 것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리고 금메달이 쏟아질 때 모두가 방바닥이 꺼지고 지붕이 날아가듯 함성을 지르며 흥분했다. 더욱 김연아의 환상적인 연기는 세계기록을 갱신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 때 많은 한인들은 한을 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번 기회에 한국인의 이미지를 만방에 한층 높이고 따라서 한국의 부가가치는 천문학적 액수가 되었다고 한다. 미국이 세계의 강국이라고 하는 것도 스포츠가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여름에는 야구, 겨울에는 풋볼을 양 주축으로 골프 농구 아이스하키 등 일 년 내내 스포츠는 계속되면서 미국 사람을 흥분시키고 풍부한 화제거리를 만들어낸다.

의식주가 해결되고 사회 보장이 잘된 사회 일수록 경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일 건전한 경기로 인한 흥분과 설렘이 없다면 무엇인가 해야 하는 인간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서 성적으로나 마약 도박, 술에 기울어지고 나아가서는 중독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러기에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건전한 경기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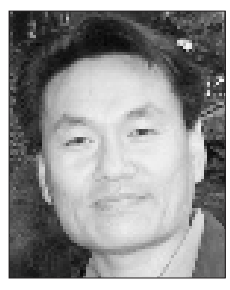
여기에 주의 할 점이 있다. 승자 자신의 겸손이다. 인기가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한다. 그 것이 생명이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승자를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승자는 자만해져 자신이 지닌 기량을 더 발휘 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메달을 따자 많은 기업체의 광고에 출연하고 신문사와 TV에 나가 인터뷰와 강연을 하고 사인하고 왕 같은 대접을 받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고 또한 다음 경기의 연습량이 적어지면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한 동안 골프의 천재 소녀라던 미쉘 위나 지난 밴쿠버의 여왕으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김연아가 지난주에 이태리에서 있었던 경기에서 엉덩방아를 찧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 하지 못해 한수 아래였던 일본의 아사다 마오에게 패배해 은메달로 만족했다는 뉴스는 모두에게 아쉬움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한다.

금메달리스트들이 지나치게 상업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미국에서도 골프의 황제라는 타이거 우즈나 각종 운동에 황제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

인생은 죽을때가지 경기의 복판에 서 있다. 언제나 승리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승리자가 되도록 항상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이기범 칼럼



이 기 범 목사
스포켄한인장로교회

믿음으로 열리는 세상

만화영화 〈알라딘〉에는 "나를 믿나요?(Do you trust me?)" 라는 대사가 두 차례나 나옵니다. 첫번째는 재스민 공주가 거지 알라딘의 거처에서 왕의 군사에게 쫓기게 되자 알라딘은 건물 아래로 뛰어내리기 전에 공주의 손을 잡으며 묻습니다. " 나를 믿나요?" 그러자 공주는 " 예"라고 대답합니다.

두번째 대사는 재스민 공주가 알라딘과 요술 양탄자를 타고 전세계를 일주할 때 공주가 양탄자위에 있는 알라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위에 떠 있을 수 있죠? 떨어지지 않나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때 알라딘은 묻습니다. "나를 믿나요?" 공주는 어디서 들은 적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양탄자에 올라탑니다. 두 사람은 음악의 선율에 따라 양탄자를 타고 전 세계를 날아다닙니다.

믿음은 두 사람을 이어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위험에서 구출해주었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히11:1, 6. 표준새번역)



진유철 칼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선한 말을 고백하는 지혜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은 표현되는 말의 힘을 아는 한국인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 되어 국가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무런 예고 없이 처칠의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처칠 수상은 목욕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무한해진 루즈벨트가 방문을 닫으려고 하자 처칠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영국의 수상은 미국 대통령에게 아무 것도 감출 게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루즈벨트는 처칠을 친구 이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처칠 수상은 기대 이상의 방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혜의 책인 잠언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지혜는 말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21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일이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는 우리의 말에 재빠릅니다. 나쁜 소문은 빨리 넓게 퍼집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말일수록 마음 깊은 곳을 찌릅니다. 배경 속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천사와 악마의 차이도 모습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고백할 줄 아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삼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어리석은 말로 일어날 뻔 한 참상을 지혜롭게 막아내었습니다. 나발의 말에 분노하여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는 다윗의 칼을 막은 것은 아비가일의 선한 말의 힘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주름잡는 세상에서 연약한 여자로 칼부림하는 세상에서 아무런 무기도 갖추지 않았지만, 선한 말을 고백하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는 비결도 선한 말을 많이 하는 데에 있습니다. 전도는 내 입에 나쁜 말이 나오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선한 말이 나오게 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열정 있는 전도자는 늘 싱싱한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도 그냥 들으면 약 10%만 소화되는데, 받아 적으면 약25%가 소화되고,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면 90%가 소화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20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신 것처럼, 남가주 성도님들의 생명의 말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정인량 칼럼



정 인 량 목사
워싱턴영광장로교회

소유의 무소유

한 분의 별세로 촉발된 무소유론이 신문 지상을 비롯한 온갖 매체를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와중에 기독교는 비교의 도마위에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말과 글들이 사실에 입각한 판단이 아니라 편견과 왜곡된 말과 글로 비난 일색이다.

압권인 것은 소위 기독교 매체이면서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다는 한 신문은 "무소유 불교 과소유 기독교"라는 제목을 뽑아 신랄하게 성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저주를 퍼붓는 것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촌평(寸評)은 촌평(村評)일 따름이다.

본 글의 중심은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것이지 결코 타 종교를 폄훼할 의도가 없음을 전제하고 기독교의 경제관이나 물질관은 무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무소유에 있음을 주장하고자 함이다. 사실 무소유는 오히려 쉬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특정종교의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는 아주 당연한 일로서 결코 칭송을 받거나 모본으로 삼을 일이 아닌 것이다. 아니 세속을 떠나 출가했거나 가정을 꾸미지 않는 분들이 무소유로 지내는 것이야 상식적으로 볼때 지극히 당연지사의 일이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한 두어 사람이 실천한 것이 큰 반향을 일으키는 아이러니를 연출하는 것이다.

물론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 분들을 볼 때 존경과 감탄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러나 그 몇 사람을 전체의 시금석으로 삼고 타 종교를 비난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기독교에도 무소유의 삶을 실천 한 분들은 부지기수이다. 장기려 박사를 아는가? 따져보면 어떤 종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에 비하면 기독교의 소유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 빈 손으로 온 인생들이 한 평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않는 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소유하되 그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지않고 무소유자처럼 지내는 일이 더 훌륭한 일이다. 아예 없는 사람이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까닭이다.

기독교는 소유하지만 두 벌옷을 가지지 않는 검약의 정신과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것으로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누는 근로와 분배의 정신으로 실천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소유의 기원을 분명히 하는 경제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얼음장 밑으로 눈 녹은 물이 흐르듯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일들을 더 박차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쏟아지는 염려와 격려의 고언은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방 칼럼



이 명 종 교수
LA 동국대 한의대학 재활학과

춘곤증엔 봄나물이 좋아요

봄이 되면 동서양인을 가리지 않고 찾아드는 불청객 춘곤증은, 기온이 따뜻해져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비타민 소모량이 많아지는데 비해 우리 몸은 아직 충분한 양의 대사물질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영양결핍증입니다. 또 낮이 길어져 겨울보다 활동량이 늘어나고 잠은 부족해지는 등 생활 리듬이 바뀐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습니다. 몸이 이런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무기력하고 나른하면서 눕고만 싶으며 졸음이 쏟아지고 식욕도 줄어드는 춘곤증은 남녀노소 누구나 겪게 되지만 특히 운동량이 부족하고 과로하기 쉬운 직장인들과 학생들 그중에서도 수험생들 그리고 주부들에게 또한 많이 나타납니다.

봄은 목(木)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때라서 목(木)에 해당하는 장기인간의 활동력이 가장 활발해지지요. 그런데 간의 기운이 활발해지면 비장과 위장(이들은 土에 해당)의 기능을 억제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식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춘곤증이 심할 때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을 피하고, 이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약재나 식품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춘곤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숙면,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음식들이 좋은데, 특히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봄나물을 섭취하는 것이 생각 이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봄나물에는 봄 철에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A, C, D 등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봄나물은 씀바귀. 씀바귀는 성질이 차고 맛이 쓰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고채(苦菜)'라고 부르며, 동의보감에서는 그 효능을 '오장의 사기와 열기를 없애고 마음과 정신을 안정시키며 잠을 덜 자게 하고 악창을 낫게 한다'고 했습니다.

두릅나무의 어린순을 말하는 두릅나물도 춘곤증 해소에 좋은 음식입니다. 두릅을 끓는 물에 적당히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특유의 맛과 향기로 봄철 잃어버린 입맛을 돋워주는 동시에, 그 신선한 향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신(安神)' 효과가 있어 정신적 긴장이 많은 학생과 직장인에게 머리를 맑고 상쾌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답니다.

봄나물의 대명사 냉이는 끓는 물에 데쳐 고추장에 무쳐 먹거나 국을 끓여 먹고, 돌나물은 새콤달콤하게 초무침을 해먹고, 봄동은 쌈으로 먹거나 고춧가루 양념을 버무려 겉절이로 먹으면 비타민 C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춘곤증 예방과 퇴치에 꼭 필요한 생활수칙 5가지를 소개하니 이를 지킨다면 어렵지 않게 나른함을 몰아낼 수 있을 겁니다.

춘곤증 퇴치 5계명

①커피, 음주, 흡연을 피한다 - 졸린다고 카페인이 많은 커피를 자주 마시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주, 흡연을 자주 하면 몸은 더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②아침을 거르지 않는다 - 아침 식사로 오전 동안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점심 식사 때 과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졸음을 줄여주지요.

③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면 나른함이 없어지고 밤에 숙면을 도와줍니다.

④낮잠은 10분만 자도 충분하다 - 10분 정도의 낮잠은 오후의 졸음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반면, 불편한 자세로 30분 이상 자면 오히려 밤의 숙면을 방해해요.

⑤환기를 자주 시킨다 - 탁한 공기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돼 하품이나 졸음을 몰고 오지요





피신의 길에서 나온 역작, 〈기독교 강요〉

〈 프랑스 종교 개혁의 발자취를 찾아서 〉 니꼴라 꼽의 연설 사건 후, 엉굴렘으로

노트르담의 신학

노트르담(Notre Dame)은 '우리들의 부인'이라는 의미로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며, 프랑스 각 도시마다 노트르담 성당들이 있기에,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은 '파리 노트르담'이라 불러야 정확하다.

프랑스에 있는 오래된 성당 어디를 방문해도 성당 정면에 최후 심판의 부조물을 볼 수 있다. 자세히 보면 마귀들이 저울을 아래로 당겨 심판의 저울을 움직여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있다.



깔뱅은 이곳 동굴에서 기독교 강요의 초고를 기록하였다. 이곳에는 깔뱅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깔뱅의 강단'이 있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십자가 + α(알파)이다. 그 알파는 인간의 정성과 노력이 추가되어야 하는 즉, 구원은 신인(神人) 협동(協同)으로 이루어짐"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신학에 의해 영세로부터 시작하여 죽어가면서 종부 성사로 인생을 끝내는 예식에 매이게 된다.

나아가 성지(聖地) 순례, 성자(聖者) 숭배와 성골(聖骨 성자들의 유골, 심지어 성자들의 유품까지) 숭배를 함으로써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까지 나오게 된다. 이 성골 숭배 사상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자, 지하에 숨어있던 신자들이 지하교회에 보관된 많은 순교자의 유골을 지상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성골 숭배가 활발해진다. 처음에는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을 보고 배우라는 의미에서 허용했던 것이, 나중에는 숭배로까지 연결되었고, 결국 성골을 보기 위한 '성지 순례'까지 유행하기 시작했다.

성지를 향해 가는 곳곳에 성인의 유골을 모신 바실리카를 만들어 순례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게 된다. 순례객들은 더 유명한 유골을 보유한 바실리카가 있는 경로를 여행코스로 선택하게 되고, 교회는 성인들의 유해를 금, 은, 보석 등으로 장식하였다. 또 이 성골이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들로 많은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교회들은 더 많은 성지 순례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돈으로 성골을 구입하여 진열했다. 심지어는 동물의 뼈로 만든 가짜 성골도 나오게 된다.

개신교 역시 이런 오류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개신교 성지 탐방에서의 성지(聖地)는 '거룩한 땅'이라는 개념이 아닌, 성경에 나오는 지역으로서 성경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머물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허무신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까지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깔뱅은 '거룩'이라는 개념이 차별과 구별의 의미로 악용(惡用)되고 있다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성직(聖職)의 개념도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깔뱅(칼빈)은 좋은 전통도 끊임없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 교정되고 종속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당시 성전(聖殿)의 개념

베르사이유 궁전이 있는 땅은 루이 14세가 몰수하기 이전, 한 주교의 땅이었다고 한다. 한국인들에게 몽 마르뜨르 언덕으로 불리는 이 땅도 한 여자 수도원장의 땅이었을 정도로, 당시 정치적 종교가들은 막강한 권력과 부를 소유하게 되고 방종과 부패한 삶을 살게 된다.

당시 대성당들이 '하나님의 큰 집', '거룩한 전'으로 불렸던 것은, 사실은 주교가 자신의 막강한 세력을 증명하려는 목적의 힘겨루기 식 건축을 위한 헌금을 갹출의 방법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사도행전 7장 48절과 17장 24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재(私財)와 헌금으로도 세울 수 없는 대형 건물 건축으로 경제의 파탄을 맞게 되자, 건물 완성을 위해 '면죄부 판매'라는 성경에도 없는 죄 사함의 해결책이 등장하게 된다. 종교가 돈만 있으면 천국도 살 수 있는, 가진 자들만의 종교로 변신한 것이다. 이런 당시 부패하고 혼란한 신학에 대항하여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의 내용이다.

1534년 깔뱅, 엉굴렘으로 피신 - 〈기독교 강요〉 초판 준비

온종일 자료를 찾다가 소중한 자료 하나를 발견했는데, 깔뱅(칼빈)이 머물렀던 친구 루이 듀 띠에(Louis du Tillet)의 집 사진이다. 엉굴렘(Angoulem)은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깔뱅이 머물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고, 알았더라도 자료가 없어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 와서 한 장의 사진 촬영을 위해 자동차로 이동하기에는 너무 멀다. 450Km나 떨어져 있다.

그런데 깔뱅은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갔다. 최고의 학부에서 법 공부를 마친 바울 사도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던(행 9:16) 것처럼, 학업을 다 끝마친 깔뱅도 그 동일한 길로 부름을 받았다. 즉 고난으로의 초대이다.

하지만 깔뱅의 길에 힘들고 먼 여정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거나, 깔뱅의 깔뱅됨을 위한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파리에서도 그러했고, 오흘레앙에서도, 부르쥬에서도, 그리고 이곳 엉굴렘에서도 그러했다. 하나님은 그런 소중한 만남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만남들을 통하여 깔뱅을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영향을 끼치는 깔뱅으로 남게 하셨다. 1534년 깔뱅은 가명을 사용하면서까지 엉굴렘으로 도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친구 루이의 집에 머물게 된다. 루이는 1502년-1503년 엉굴렘 지휘관과 시장(市長)으로, 프랑수와 1세 모친의 비서였던 엘리 듀 띠에(Helie du Tillet)의 아들이었다. 또한 루이는 끌레(Claix)의 교구 주임 신부로 집에 교부들의 책을 비롯한 보기 드문 책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다. 덕분에 깔뱅은 피신자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글 쓰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 바로 깔뱅의 대작 〈기독교 강요〉 초판을 준비하게 된다.

하지만 엉굴렘에 머물었던 깔뱅의 신변이 항상 안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깔뱅은 루이의 집 외에 Saint-Saturnin과 Claix, 그리고 동굴에서 돌 위에서 자면서 은신해야 했다. 기독교 강요의 많은 부분들은 동굴에 숨어 기록하였는데, 개혁 신앙의 정당함을 논증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으나 전혀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한 내용을 저술하게 된다.

깔뱅은 또한 루이와 함께 있으면서 그곳의 사제들과도 교제를 하게 된다. 어떤 사제들은 깔뱅에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참되고 순결한 지식의 맛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몇 편의 설교를 요구하기도 하여, 깔뱅은 설교를 기록해 전달하기도 했다.

깔뱅과 루이의 첫 만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찾기 힘들지만, 깔뱅이 파리에 첫번째 머물면서 다녔던 두 학교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1523-1527).

깔뱅이 지나간 이후, 1560년경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엉굴렘 근교인 Segonzac, Cognac, Saint-Meme, Jarnac 등의 지역들은 종교 전쟁과 관련된 장소이다. 특히 자르낙(Jarnac)은 1569년 제3차 종교 전쟁 때 유명한 전투 지역이며, 앙리 4세의 숙부인 위그노 군 장군인 루이 드 꽁데가 전투에 패배하고 전사한 곳이다.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이 아무리 당겨도 움직이지 않는 성경의 가르침을 나타낸다. 노트르담 신학과 극단적인 차이점을 보여주는 개혁주의 신학의 한 모습이다.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지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GLOBAL VISION BANK
글로벌 비전 뱅크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를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흥 목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의 정육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Prime과 Choice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갈비 전문점/교회 단체 특별가격
프리임 생등심 프리임 갈비살 샤브 샤브
프리임 꽃살 초이스 찜갈비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오리고기 흑염소 돈까스/비프까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11가점 (1호점) Tel 323.733.4677

훼밀리 종합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김기형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정직·신용·믿음으로 모시겠습니다
213.453.59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이사는 한강(漢江) 이삿짐에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한국인이 직접 포장하고 정리정돈까지 답답하고 속터졌던 경험들 이제 여러분의 KEY를 한강에 맡겨주세요! 한강은 양심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국식 포장 및 정리정돈까지"
L.A 213.386.2424 O.C 949.784.2424
Hankang Local(시내) 이사 전문 • 무료견적 서비스 • 야간이사 OK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40 한달 온가족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은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40 한달 온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JAMES JHUNG (제임스 정) EXECUTIVE DIRECTOR
Tel : 213.725.7217 세일즈 하실분 모집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CD - DVD
• 영상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훼밀리 만물상
주 7일 OPEN
가정용, 사무용, 모든 가전제품 좋은 가격에 사고 팝니다.
세탁기, 드라이어, 냉장고 수리 교환 및 판매, 운반 설치
전화문의 환영 T.213-247-9555

SK smart-naephone
SK한국전화기를 설치, 한국전화번호를 받고 한국시내요금으로 미국, 한국 양방향 통화
서울전화번호만 누르세요
분당 2¢의 저렴한 요금
Taurus System USA Inc.
문의 : 213-435-0608

반값으로 할 수 있다!
-차바디수리 50% 절약-
"획기적인 바디수리 시스템"
오토맥스 오토바디
213-265-8485, 213-388-4464
Main Office 2975 Wilshire Blvd 350 Los Angeles, CA 90010

결혼 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가나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한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자체사옥, 자체차량, 전문고급인력, 30년 경험의 현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삿짐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 드립니다.
전 미주 지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는 현대통운의 지사망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타주 이사 시내 이사 귀국 이사
무료전화 1-866-545-2424
323.766.1111
현대통운
3022 S. Western Ave, LA, CA 90018
www.HyundaeMoving.com e-mail : skook@hyundaemoving.com

LANCE WANG
커텐
Window Treate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텐 전문점
신세대 혼수 / 침대커버 / 쿠숀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가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박을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한국 ₩ ⟷ $ 미국
당일 동시 (고액 전문)
(213) 388 - 4989
소액도 가능합니다

건축 설계 도면 디자인
이경신 Kyong S. Lee (Mary)
Interior & Landscaping Designer,
Architecture Web & Graphic Designer
ARCHITECTURE DESIGN
INTERIOR DESIGN
LANDSCAPING DESIGN
PERMIT DRAWING
E-2 Visa 및 투자 이민 가능하며, 언제든지 투자 상담 환영합니다.
미국으로 이민해서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Income이 나올수 있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 컴퓨터 개인교습도 가능합니다.
Subject : Microsoft Office, Word, Excel, Powerpoint Photoshop, Illustrator, Webdesign course
Tel. 213-284-4111

K.KOH 루핑 Ll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 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 업체
(714)200-7552 (213)663-2306

컴퓨터 HIS COM 출장수리전문
오픈기념 세일 컴퓨터 수리 start $29
• 컴퓨터 판매, 수리 • DVR/IP CAMERA
• 컴퓨터 조립, 공유, 수리, 파일백업 및 관리 • 4CH DVR $1,199
213-810-4000

"모든 자동차 유리 수리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아메리칸 자동차 유리
Cheap Repair!
• Foreign & Domestic Car
• 새 유리 & 중고 유리
• 넓은 웨어하우스 인벤토리
• 무료 전화 견적
• Low, Low Prices
• Complete 오토글래스 서비스
• 한국어, 스페니쉬, 영어 서비스
• Stone Damage 수리
돌 맞은 곳 때워 드립니다.
www.americanautoglassinc.net
Tel : (323) 752-1820
2052 W. Florence Ave, Los Angeles, CA 90047

냉난방기 설치 전문업체 경력 30년 유명브랜드 냉난방기 전문 취급업체 / 미주 전지역 LG, 현대, 위니아, 삼성총판
AMAZING 에어컨백화점
7년 연속 에어컨 1위
HYUNDAI
WINIA
SAMSUNG
에어컨 선정과 수명은 설치에 달렸습니다. LIC# 863510
323.525.0011/213.200.5388/amazingaircon.com

특별후원 중앙일보 특별협찬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아시아나항공 5 STAR AIRLINE SKYTRAX

역시 효자다!

서울아산병원의 건강검진이
역시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30년 이민생활에 자식 키우느라 이제껏 여행
한 번 못가보신 우리 부모님.
지금도 우리들 뒷바라지에 고생하시는 부모님.
한국내 최고 아산병원과 미국내 1등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이제껏 한 번 못다한 효자노릇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일등 병원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하는 미주 일등 관광 'LA 아주관광'의 名品 의료관광!

교민들을 위한 프리미엄 VIP의료서비스(미주교민 특별우대)

아주관광에 파견된 전문의료진이 무료 건강상담 및 개인별 맞춤 건강검진 프로그램 설계 수행
- 검진 다음날 결과를 확인하는 VIP용 특별서비스 제공
- 45명의 진료과별 전문의 상주로 이상소견 발견시 즉각적인 진료서비스 제공
- 건강의학과(외래9개, 3개 클리닉)완비로 당일 진료연계서비스 제공
  - 외래: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알러지내과, 호흡기내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신경과, 정신과
  - 클리닉: 대사증후군클리닉, 남성의학클리닉, 금연클리닉
- 검진 내용 '결과지+CD'로 제공, 해피콜, 헬스스케쥴링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한국내 1위, 서울아산병원

스페인 웨보 매트릭스 랭킹서 국내 병원 중 유일하게 세계 100대 병원 선정 (2009년 6월 17일)

'2009 글로벌 고객만족1위' 2년 연속 수상한 서울아산병원

"환자중심의 권리증진 실천, 다양한 고객서비스 활동"높은 평가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고객서비스에서도 한발 앞서 일본능률협회컨설팅, 10만명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2009년 7월 24일)

국내 의료계 최초 암센터 부문, 대한민국 명품 선정

2009 The Proud 대한민국 명품 서울아산병원 암센터
10대 암 중 9대 암 수술 실적 1위 및 6개 암 환자 수술 최다 시행 병원

A 패키지 남/여 $1,999 부터
위, 대장내시경을 포함한 성인병 전문 프로그램

주요검사: 위내시경(수면), 대장내시경(수면), 복부초음파, 종양표지자 (간암,대장암,소화기암, 전립선암(남), 난소암(여)), 혈액정밀검사 및 유방x선(여), 액상자궁경부암(여) 포함.

B 패키지 남 $2,999 부터 여 $3,149 부터
위,대장 내시경 및 장기별 초음파, CT검사를 통한 암정밀 검사 프로그램

주요검사: 위내시경(수면), 대장내시경(수면), 복부초음파, 종양표지자 (간암,대장암, 소화기암, 전립선암(남), 난소암(여)), 혈액정밀검사 및 유방x선(여), 액상자궁경부암(여) 포함, 흉부CT, 복부골반CT, 갑상선초음파, 심장운동부하, 골밀도, 흉추요추X선, 소변암세포, 경동맥초음파(남), 전립선초음파(남), 인유두종바이러스(여,HPV), 골반초음파(여), 유방초음파(여)

모두 포함! 항공료+서울아산병원 검진비+특급호텔(2박)+교통 및 식사

✤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개인별 맞춤 서비스 출발 (성원에 힘입어 의료관광은 계속됩니다.) ❊ 성수기 추가 요금

SINCE 1984 – 관광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믿음직한 명품관광은 역시 아주관광 입니다!

www.usajutour.com 아주투어 AJU Tours CST # : 2052210-10 아주관광

ASAN FOUNDATION 아산재단 서울아산병원 앞선 의술 더 큰 사랑

대표전화 (213)388-4000 1-800-933-3011 서울 02-522-8686 아산병원 LA센터: 213-387-9090

♠아주항공부: (213) 387.9090 ♠동부(로렌하이츠, 리버사이드): (800) 956-3939 ♠토렌스(310) 217-0770 ♠샌디에고(800) 994- 1233 ♠북경: 8610-6439-2397 ♠3053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 2010 미주기독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미주성결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TEL : 323-643-0301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육대학
Internatia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4월 12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윌셔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rian Theologi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956-2900
2221 W. Colchester Dr., Ana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Angeles, CA.90007

풀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솔로몬대학
Solomon University, SU

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
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 공동 학위 수여

TEL : 213-381-7755 |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쎄비스 재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2009 시즌 아시안 타자 최초로 20-20 클럽 가입! - 추신수 플랜으로 얻어진 수익금 중 일부는 연말에 비영리 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

로컬, 장거리, 한국포함 국제전화를 하나로- iTalkBB

"추신수 선수로 인해 행복해 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 추신수 선수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아이토크비비에 가입하고 추신수 선수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

추신수 플랜 | 첫 3개월간, 이후 1년간 $24.99/월
$9.99 TAX 포함

지금 가입하시면,
-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개통비 ($29.99) 면제

행사기간: 4월 1일 - 4월 15일까지

아이토크 비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추신수 아이토크비비 홍보대사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
www.Korea.iTalkBB.com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800-872-2902

Verizon, AT&T 가정용 전화 완전대체
30일 환불보장

- 집전화 및 휴대전화로 한국포함 29개국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화!
- 기존 집 전화번호, 전화기 이용가능!
- 미국전화번호 및 한국전화번호 무료제공!
- 각종 부가 서비스 무료 제공!
- 폰어댑터 무료 대여!

1-800-875-8318 고객지원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iTalkBB와 함께 성장하실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213-784-1133

아·이·토·크·비·비 iTalkBB
Joins AMERICA www.koreadaily.com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폴 이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로모션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총 15개월 간의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시는 경우 $6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받으신 총금액을 합산해 부과합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계약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8)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안전하고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PUENTEHILLS HYUNDAI

...HYUNDAI HAS IT

푸엔테힐스 현대의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한인목회자 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4월 한달 더 연장 세일-

1. 목회자 특별 리스 및 원가세일 단행

목회자이시면서 쇼셜이 없으신 분, 크레딧이 없으신 분과 나쁘신 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또한 구입을 원하실 경우 특별가격에 도와드립니다. 단, **목회자 증명서** 필요

2. 북미 최대 단일현대 딜러

총 부지 6.8에이커로 800대의 자동차를 동시에 전시 판매할수 있으며, 편안하고 품위있는
차량구입에서 정비, 바디샵과 사후 관리까지 최첨단의 시설로 원스탑 달러로 고객만족을 위해 만전을 기함

3. 고객을 우선시하는 딜러

우리는 고객을 우선시하기에 아이들 놀이방 및 간식 제공, 서비스 대기시 괘적한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및 차량 구입자 전원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세차 및 일정의 서비스 고객들께
평생 무료 오일체인지 등과 함께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서두르세요! 한인 목회자 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4월 한달 스페셜 세일'

2010 ELANTRA GLS

LESAE $159 + Tax
24 month/12K mile T.D.O $1,999
(O.A.C) MODEL #44414 IN STOCK ONLY ★★★목회자 특별 리스 해당 품목★★★

2010 NEW SONATA GLS

SALE 0% + $750 CASH BACK
(O.A.C) MODEL #26404 IN STOCK ONLY

※ 상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딜러에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푸엔테힐스 바디샵 딜러 자체내 오픈-

검증된 기술자 채용, 최첨단 도장 처리시설 완비, 무료견인및 무료 견적, 신속하고 깔끔한 뒷처리, 모든 브랜드의 자동차 100% 소화

오픈 기념 행사 수리하시는 동안 무료 렌트해 드림. 무료 휠 얼라이먼트 해 드림.
4월 한달 방문하시거나 서비스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찰리 정 / Fleet Manager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4.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 월-토 9:00am~9:00pm
▸ 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 월-토 7:30am~6:00pm
▸ 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스티브 장 앤디 킴 스티브 박 지니 안

푸엔테힐스현대 WWW.PHHYUNDAI.COM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lose your income,* we'll let you return it.